

6·25전쟁과 육사 생도 1, 2기

: 사관생도 참전전투를 중심으로



대령 나종남 (육사 군사사학과)

순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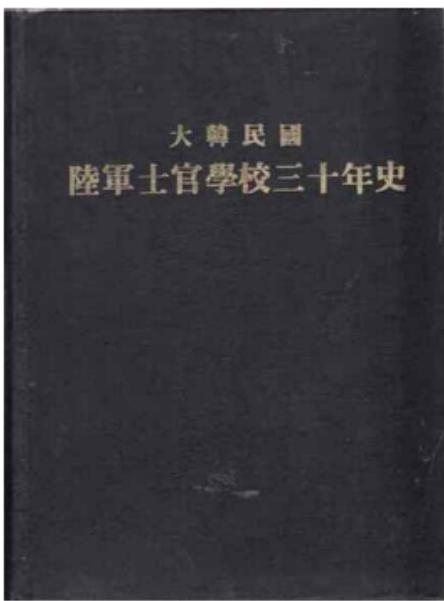
- 발표를 시작하며
- 육군사관학교의 설립과 발전
- 6·25전쟁과 생도 1, 2기
- 사관생도 참전 전투
- 기억, 기록, 추모
- 발표를 마치며



발표를 시작하며

■ 생도 참전전투 : “사실(fact)에서 역사(History)로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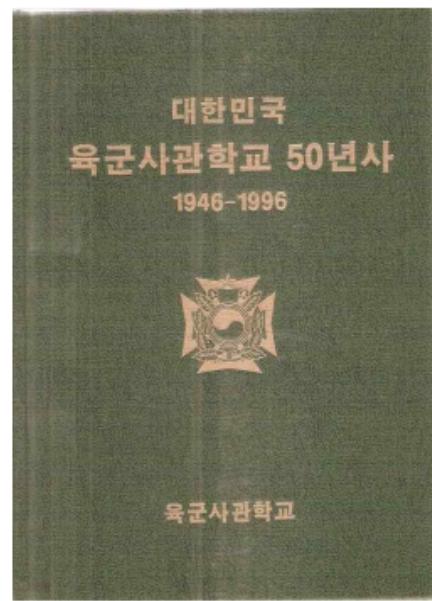
☞ 사실 → 기억 → 기록 → 평가/검증 → 역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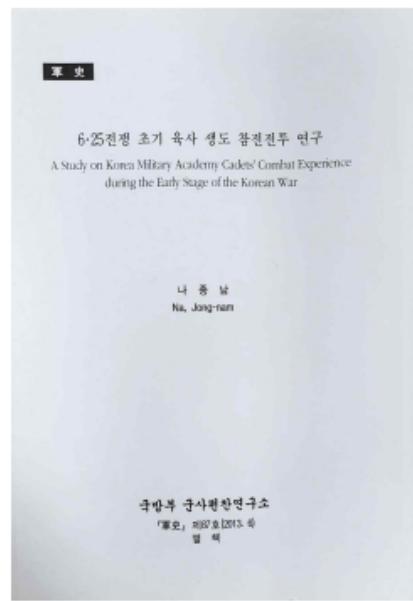
1977년



1978년



1996년



2013년

육군사관학교의 설립과 발전 [1/2]

■ 군사영어학교 개교 [1945. 12. 5.]

■ 사관학교 설립 및 발전

□ 1946. 5. 1, '남조선국방경비대사관학교' 설립

□ 1946. 6. 16, '조선경비사관학교'로 개칭

✓ 1기~7기 : 45일~6개월 교육, 특별반 등 편성

□ 1948. 9. 5, '육군사관학교'로 개칭

✓ 8기~9기 : 22~23주 교육, 특별반 등 편성

✓ 10기(생도 1기) : 1949. 7. 25. 입교

✓ 생도 2기 : 1950. 6. 1. 입교

□ 1950. 7. 8. 戰時 휴교

□ 1951. 10. 31, 경남 진해에서 재개교

□ 1954. 6. 24, 태릉으로 복귀



육군사관학교의 설립과 발전 [2/2]

■ 군사영어학교 개교 [1945. 12. 5.]

■ 사관학교 설립 및 발전

□ 1946. 5. 1, '남조선국방경비대사관학교' 설립

□ 1946. 6. 16, '조선경비사관학교'로 개칭

✓ 1기~7기 : 45일~6개월 교육, 특별반 등 편성

□ 1948. 9. 5, '육군사관학교'로 개칭

✓ 8기~9기 : 22~23주 교육, 특별반 등 편성

✓ 10기(생도 1기) : 1949. 7. 25, 입교

✓ 생도 2기 : 1950. 6. 1, 입교

□ 1950. 7. 8, 戰時 휴교

□ 1951. 10. 31, 경남 진해에서 4년제로 재개교

□ 1954. 6. 24, 태릉으로 복귀



6·25전쟁과 육군사관학교 (1/2)

■ 개전 당일 참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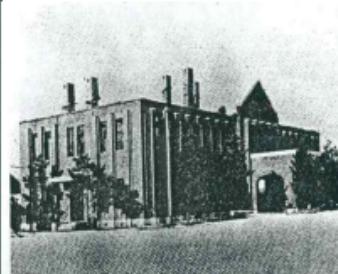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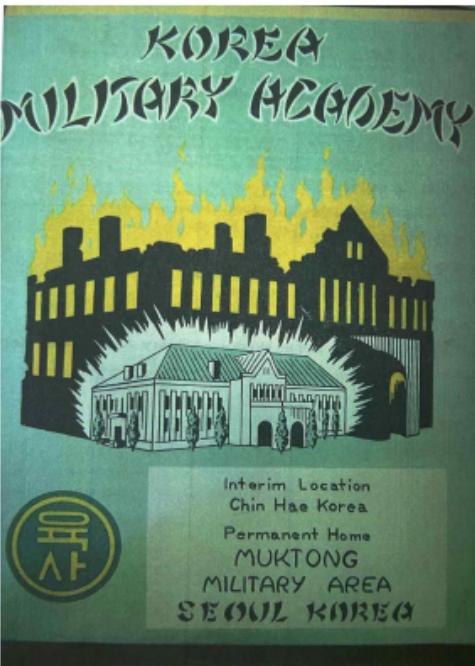
- 6.25, 교도대대, 생도대대 전선 투입
- 6.28. 오전 中, 敵 후속부대에 점령

■ 전시 휴교 : 1950. 7. 8.

- 초기 전투 中 학교 교육시설 파손
 - ✓ 1950. 6. 28.~ 9월 말, 敌 후방부대 주둔지

■ 전시 재개교

- 1951. 10. 30, 경남 진해
 - ✓ '육사 창설위원회'(1951. 9.) 조직
 - ✓ 4년제 정규 사관학교로 개교
- 1952. 1. 1, 11기 가입학
- 1954. 6. 25, 태릉 복귀



Burned out
Administration
Building
MUK TONG

불에 탄 학교본부 건물



Burned Out
Classrooms
Muk Tong

불에 탄 강의실 건물

* 1953년 학교 홍보 책자 표지(左)와
전쟁 중 파괴된 '태릉 육사'의 교육시설 사진 (右, 上下)
(미군 군사고문단 발간, '진해 육사' 시절)

6·25전쟁과 육군사관학교 [2/2]

■ 생도 1기 [육사 10기]

□ 2년 과정으로 모집, 1년 과정으로 단축

✓ 1949. 7. 20, 338명 입교

☞ 군사학(전술학, 화기학) 외 일반학, 체육학 등 교육

✓ 1950. 6. 25.~7. 6. 262명 전선 투입

☞ 전사 65명, 부상 20명, 실종 43명

✓ 1950. 7. 10, 262명 임관(대전) * 1950. 7. 14. 임관 예정

☞ 134명 참석 * 1966, '1기 경리 생도' 출신 50명이 육사 10기로 흡수

■ 생도 2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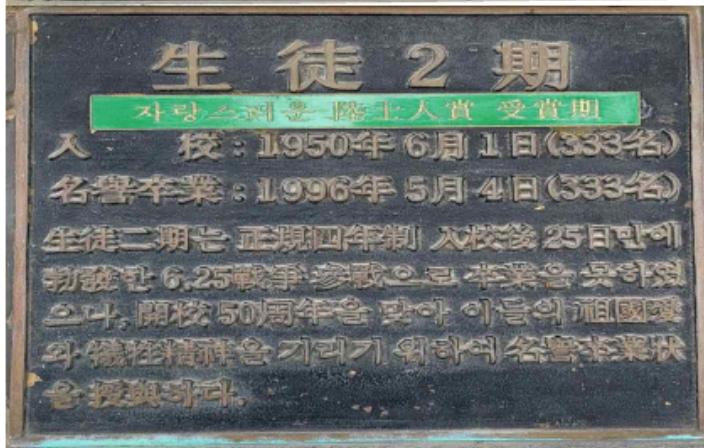
□ 4년 과정으로 모집

✓ 1950. 6. 1, 334명 입교

✓ 1950. 6. 25.~7. 6. 277명 전선 투입

☞ 전사 및 실종 85명

✓ 1950. 8. 15, 육군종합학교 1, 2기로 편입, 교육 후 임관



사관생도 참전 전투 (1/7)

■ 1950. 6. 25. 11:00, 서울특별연대 편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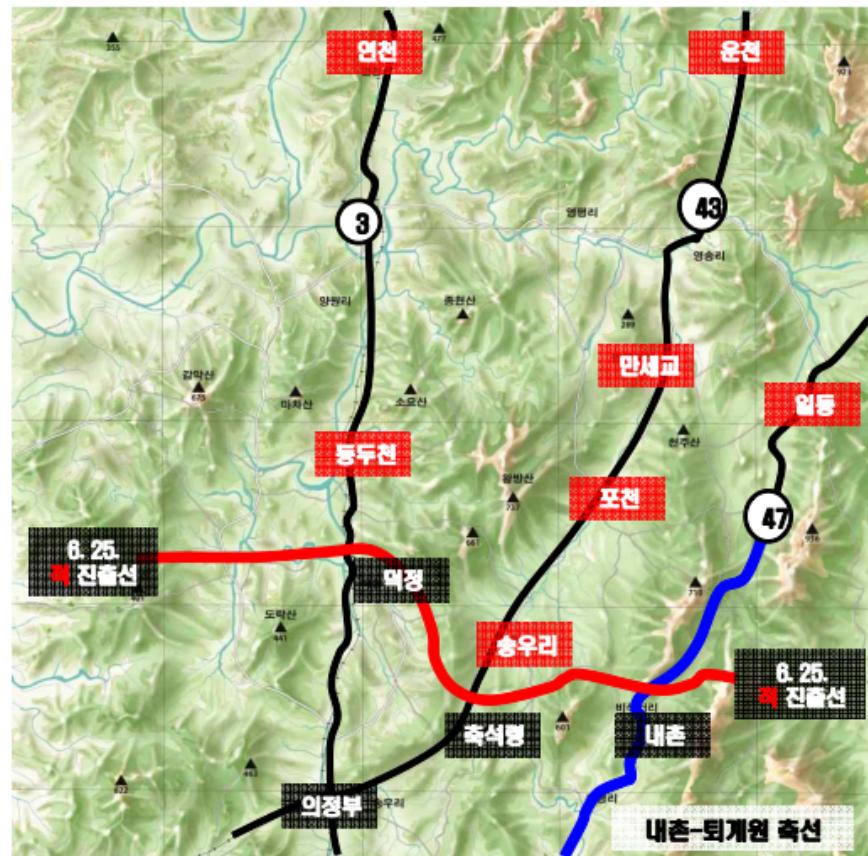
- 육사 교도대대 및 생도대대, 보병교 교도대대
- 우발상황 대비, 수도 방위 목적

■ 의정부 방어선 붕괴 위기

- 敌 3사단에 의한 포천 점령, 의정부 정면 위기
- 후방 증원부대 도착 지연
 ⇒ 서울 방어를 위한 외곽방어선 구축 시급

■ 육군본부, <작전명령 제90호> 하달 (6.25. 13:00)

- 육사 교도대대, 제1사단 배속
- 육사 생도대대, 내촌~퇴계원 축선 방어
 - ✓ “생도로 구성된 전투대대 편성, 포천방면 출동, 부평리(現 내촌) 일대 377, 330고지 진지 편성”



사관생도 참전 전투 [2/7]

■ 전투 편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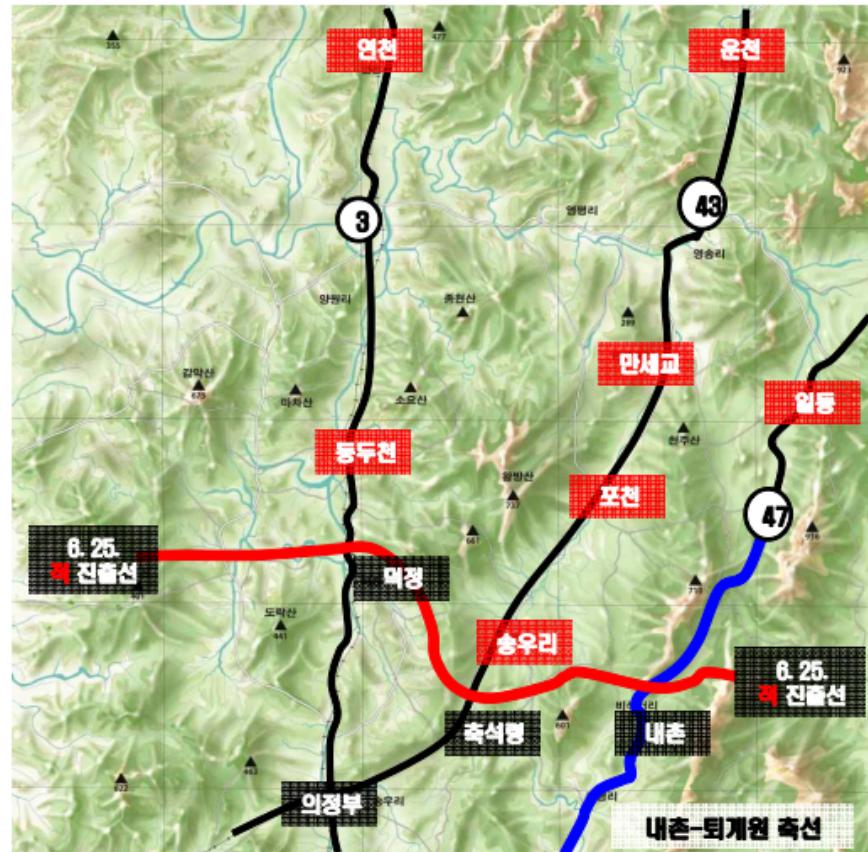
- 지휘관 : 중령 조암 (생도 대대장)
- 가용 병력 : 539명 (1기 262명, 2기 277명)
- ✓ 편성 : 소총중대 3개, 중화기중대 1개
- ✓ 역할 분담
 - ☞ 1기: 지휘자(소대장, 분대장, 부분대장, 반장, 사수 등)
 - ☞ 2기 : 소총수 (부대원, 연락병 등)

□ 무기 및 장비

- ✓ 공용화기 : 교육용 박격포, 경기관총, 자동소총 등
- ✓ 개인화기 : 99식 소총, 카빈 소총, M1 소총 등
 - ☞ 박격포탄 50여발, 개인화기 탄약 개인당 56발

■ 전선 투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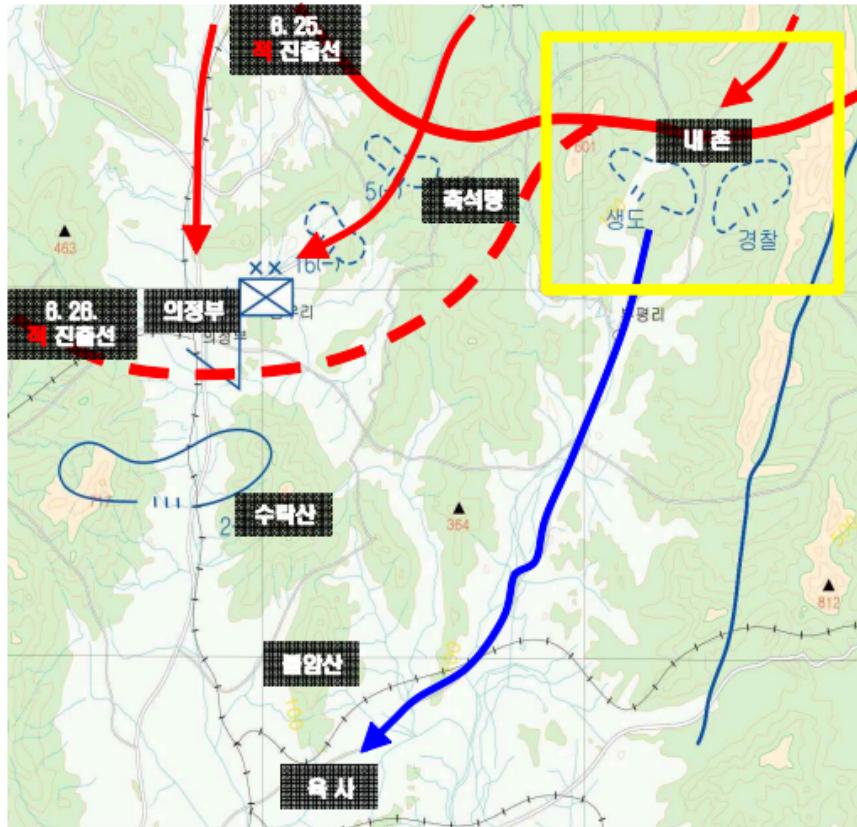
- 1950. 6. 25. 20時, 포천군 내촌면 일대 투입
 - ✓ 후방 증원부대 도착 지연
 - ☞ 서울 방어를 위한 외곽방어선 구축 시급



사관생도 참전 전투 [3/7]

■ 내촌전투(1차): 6. 26. 16:00~19:00)

- 6. 25 20:00, 내촌 일대 방어진지 편성
 - ✓ 43번 도로를 양측에 생도대대, 경찰대대 배치
 - ☞ 상급 및 인접부대 통신 수단 전무, 전황 파악 미흡
- 6. 26 오후, 敌 선두부대가 경찰대대 방면 공격 개시
 - ✓ 경찰대대, 약 10여분 교전 후 탄약 고갈 후 철수
 - ✓ 敌, 생도대대 정면을 향해 공격 개시
 - ☞ 약 2시간에 걸쳐 치열한 교전, 적 공격 저지에 성공
 - ☞ 근접전투, 탄약 부족 등으로 인명손실 심각
- 6. 26 18:00, 의정부 함락 위기 소식 전달
 - ☞ 19:00, 대대장, 철수명령 하달 후 학교 복귀
- 6. 26 야간, 의정부 실함 직후 창동방어선 구축
 - ☞ 육군본부, 육사에 불암산~육사 간 방어선 구축 지시



사관생도 참전 전투 (4/7)

■ 태릉 전투(2차) : 6. 27. 야간~6. 28. 새벽

□ 6.27. 14:00, 방어진지 편성 완료

- ✓ 생도대대 1중대: 삼육신학교~장기리

- ☞ 7사단 9연대 철수병력 : 불암산 방면 담당

- ✓ 생도대대 2, 3중대 : 92고지 동쪽, 서쪽 담당

□ 6.27 야간, 창동방어선 붕괴 후 미아리방어선 격전

- ✓ 22:00경, 학교 전역에 포탄 낙하

□ 6.28 새벽, 敌 선두부대, 92고지 방향 공격 후 교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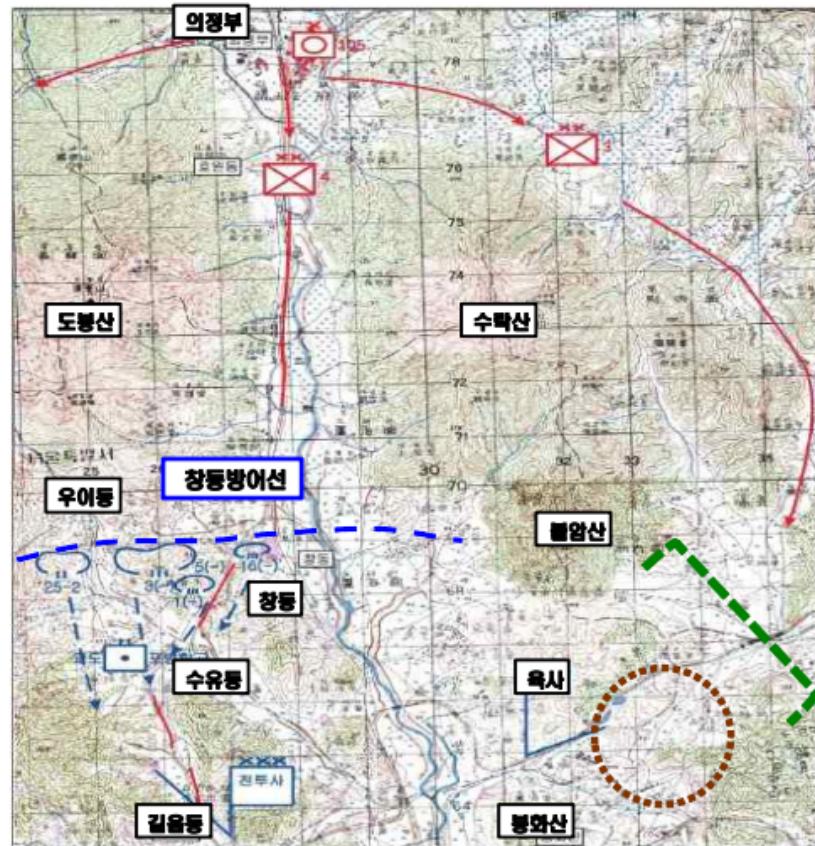
- ✓ 03:00경, 敌, 서울 시내 진출, 한강교 폭파

- ✓ 04:00, 학교 지휘부, 철수명령 하달

- ☞ 철수명령 전달 미흡, 철수 과정 혼선 발생

□ 6.28 정오, 생도대대, 한강 이남 광나루 일대 집결

- ✓ 구릉지대 진지 편성 후 피난민 검문검색 실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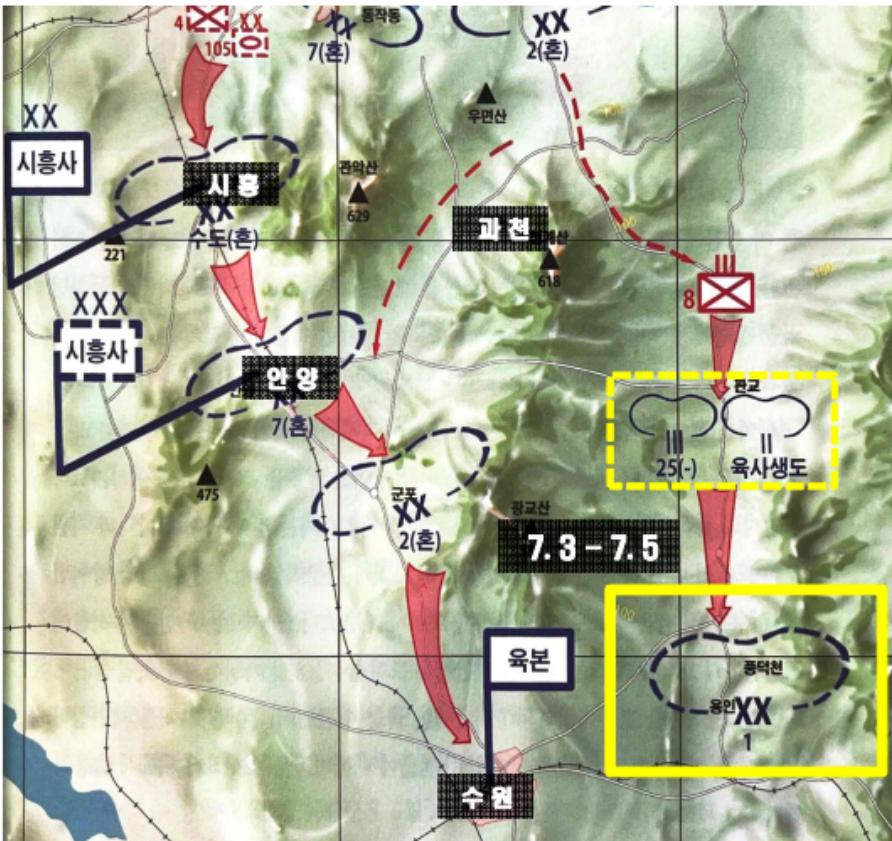
사관생도 참전 전투 [5/7]

■ 금곡리 전투(3차) : 7. 2~ 7. 4.

- 6.30, 육군본부, 서울~수원 간 도로 방어 지시
- ✓ 7. 1, 생도대대, 판교~금곡리 일대 방어진지 편성
- ✓ 7. 2. 야간, 적이 생도대대에 대한 집중공격
 - ▣ 효과적 사격으로 敵 공격 저지,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
- ✓ 7. 3. 08:00, 수원방향으로 철수 중 제1사단에 합류
 - ☞ 풍덕천 인근 237고지에 진지 편성 후 예비대 임무 수행
- ✓ 7. 4, 敌 4사단 선두부대의 초기 공격은 저지하였으나,
전차를 앞세운 오후 공격은 저지 불가능
- ✓ 7. 5~6, 평택에서 육본 명령으로 대전으로 이동

■ 인명 손실(전사, 실종 등) : 총 193명

- 생도 1기 262명 중 108명, 2기 277명 중 85명
 - ✓ 이후 6.25전쟁 중에도 다수의 인명손실 발생



사관생도 참전전투 : 불암산 유격대 [6/7]

■ 유격대 편성 및 활동

▣ 사관생도, 철수병력 등 혼합 20명으로 편성

- ✓ 사관생도 13명(1기 10명, 2기 3명), 9연대 7명

▣ 4차에 걸쳐 유격활동 전개

- ✓ 1차(7.1.), 퇴계원 소재 적 보급품 적재장소 공격

⇒ 적 보급품 파괴, 30여 명 사살

- ✓ 2차(7.31.), 창동 소재 적 수송부대 및 보안소 공격

⇒ 적 속영지, 보급차량, 보안부대 사무실 습격

- ✓ 3차(8.15.), 육사 내 적 의용군 훈련소 공격

⇒ 적 병력 50여명 사살, 김동원 생도 등 6명 전사

- ✓ 4차(9.21.), 철수하는 적 수송부대 매복공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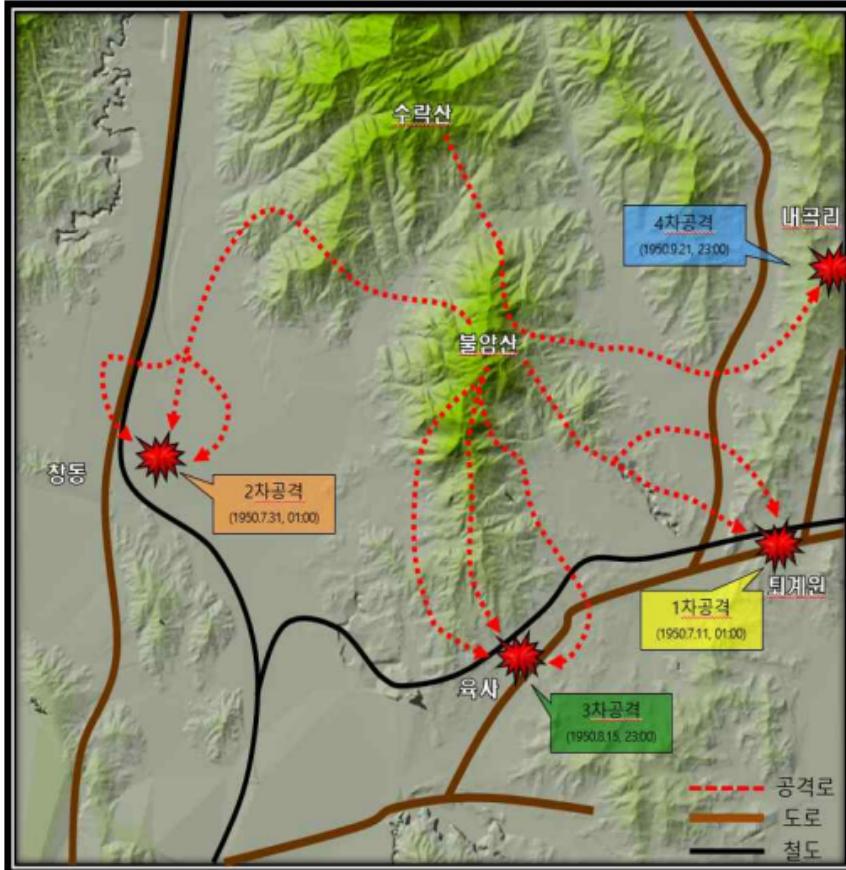
⇒ 적에게 끌려가던 민간인 구출, 1명 외 전원 전사

* ‘돌마면 유격대’ * 경기도 광주군 일대에서 활동

- ✓ 국군 낙오병 17명(사관생도 5명 포함)에 의한 유격대

- ✓ 1950년 9월 중순, 퇴각하는 적에게 기습공격으로 전공

⇒ 생도 1기 3명은 미 제7사단 수색대에 발견되어 전선 복귀



사관생도 참전 전투 : 분석 및 평가 (7/7)

■ 사관생도 전선 투입 결정

▫ 참모총장의 직접 지시

- ✓ 높은 경쟁률을 거쳐 선발된 우수 인재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총수로 활용
- ✓ 개전 초기 유능한 초급 지휘자 부족 문제 심각

■ 학교 지휘부의 소극적 조치

▫ 1~3차 전투 간 학교 지휘부의 역할 불명확

▫ 한강방어선 형성 이후 생도대대 지속 투입은 부적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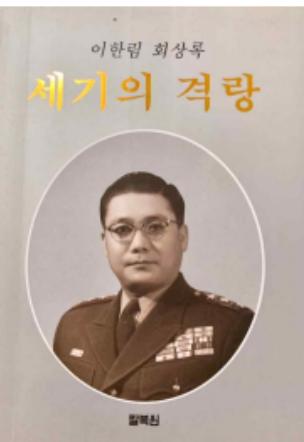
- ✓ 6.30, 학교장이 혼성 제3사단장에 보직
- ✓ 화기, 장비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他 부대와 혼합편성 운용

■ 생도대대 전투준비 미흡

▫ 기본 전투장비 부족: 공용화기, 탄약, 통신장비 등

▫ 통신장비 부족 : 지휘 및 철수 간 혼란 발생

- ✓ 명령 하달 지연 및 누락으로 다수의 희생, 실종, 낙오자 발생



* 장창국 대령(當時 육본 작전부장)

“왜 그때 좀더 강력하게 사관생도의 출병을 막지 못했을까 하는 회한은지 금도 나를 괴롭히고 있다. 1명의 생도가 임관되면 소대장 신분으로 40여 명의 병사를 지휘, 40배의 전력을 활용 할 수 있는 것이다. ... 이런데도 졸업을 며칠 앞둔 생도들을 자동소총 사수로 까지 보냈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.” (1984, 333쪽)

* 이한림 대령(當時 부학교장)

“생도들을 수습하여 인원을 점검하니 전사자와 행방 불명자가 의외로 많았다. 나는 지금도 그때 잊은 사관생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그 영령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거둘 수 없다. 당시 채병덕 참모총장도 얼마나 당황하고 다급했으면 사관생도까지 투입했겠느냐고 그를 이해도 하고 싶다.” (1994, 146~147쪽)

기억과 기록, 추모 [1/6]

■ 美軍 기록

- 8군, 군사고문단(KMAG) 등 : 관련 기록 없음

■ 공식 기록

□ 국방부, 육군

- ✓ 육군본부 작전명령 등 일부만 존재
- ✓ 장교자력부 등 개인 기록 위주 일부 존재

□ 육군사관학교

- ✓ 개전 초기 참전 및 휴교로 인한 공식 기록 손실
- ☞ 학적부 원본 손실, 차후 작성한 명단 보유

■ 동기회 및 개인 기록

□ 1950년대 중반 이후 자료 수집 시작

- ✓ 생도 1기 : 동기회 중심 추모비 건립, 기록 수집 시작
- ✓ 생도 2기: 1960년대 초반 이후 동기회 활동 시작, 자료 수집 노력 병행

■ 공간사(公刊史) 서술

□ 국방부, 육군

- ✓ 1950년대, 생도대대의 전선 투입 사실만 간략하게 언급
- ✓ 1960년대 말, 생도 참전전투 본격 기술(4쪽 분량)
- ✓ 2000년대, 불암산 유격대 등 포함 자세하게 기술 (10쪽 분량)

□ 육군사관학교

- ✓ 1977, 『30년사』에 생도 참전전투 자세하게 소개
- ✓ 1996, 『50년사』에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 활동 추가 서술
- ✓ 2000년대, 모교 동문에 대한 연구 및 각종 추모행사와 연계한 학술 연구 수행

■ 동기회 및 개인의 서술

□ 1970년대 이후 자서전, 수기 형태로 발간

- ✓ 생도 1기 : 『불멸탑의 증언』(1978) 등
- ✓ 생도 2기 : 『육사 생도 2기』(2000) 등

기억, 기록, 추모 (2/6)

■ 생도 1기

◆ 불멸탑 (不滅塔)

▶ 동기회 건립(1959. 10. 2.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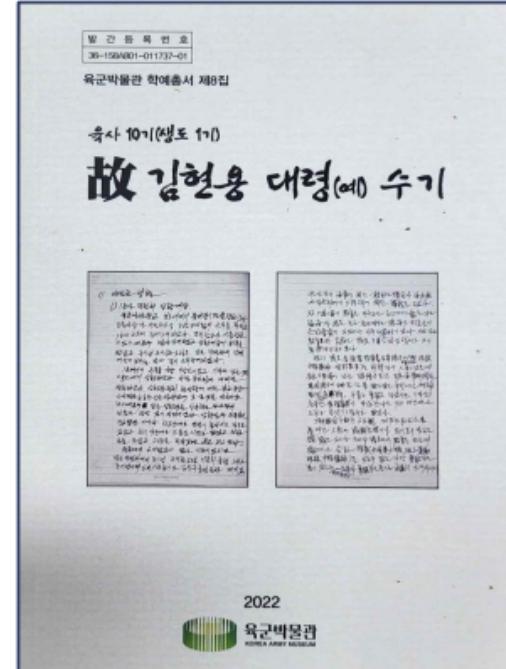
◆ 『불멸탑의 증언』

▶ 남상선 著 (1978)



◆ 『故 김현용 대령 수기』

▶ 육군박물관 학예총서 (2020)



2022

기억, 기록, 추모 (3/6)

■ 생도 2기

◇ 육일탑(六一塔)

▶ 동기회 건립 (1971. 6. 25.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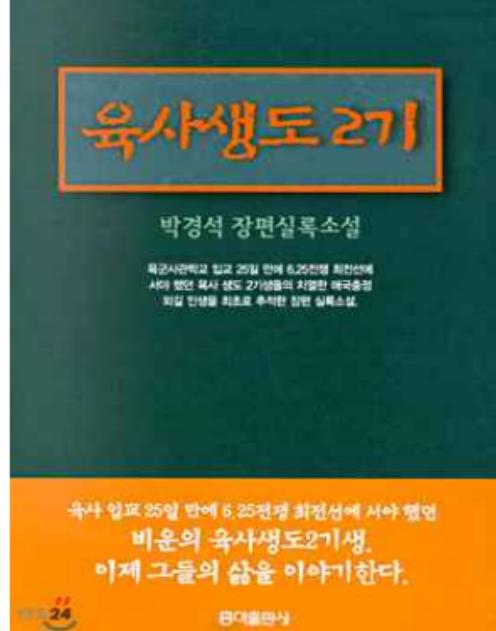
◇ 참전 생도상

▶ 동기회 건립 (2000. 6. 17.)



◇ 『육사 생도 2기』

▶ 박경석 著 (2000)



육사 입교 25일 만에 6.25전쟁 최전선에 서아 했던
비운의 육사생도 2기생.
미제 그들의 삶을 이야기한다.

기억, 기록, 추모 (4/6)

■ 생도 2기

◇명예 졸업장 수여(1996. 5.)



생도2기 출신 인사들이 29일 윤사교장의 교
총립에서 동판에 새겨진 동기생 명단에 들어
다 보고 있다. **〈金寧万 기자〉**

◆ ‘자랑스러운 육사인상’ 수여(2010. 5.)



기억, 기록, 추모 (5/6)

■ 생도 1, 2기 ◇ 육사 생도 6·25참전 기념비

‣ 육군 제6군단 (1980. 6. 25.) ➡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소재(전투 현장에서 5km 이격)



기억, 기록, 추모 (6/6)

■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

◇ 구국충혼비(2020)



◇ 유격대 활동 안내 간판(2019, 입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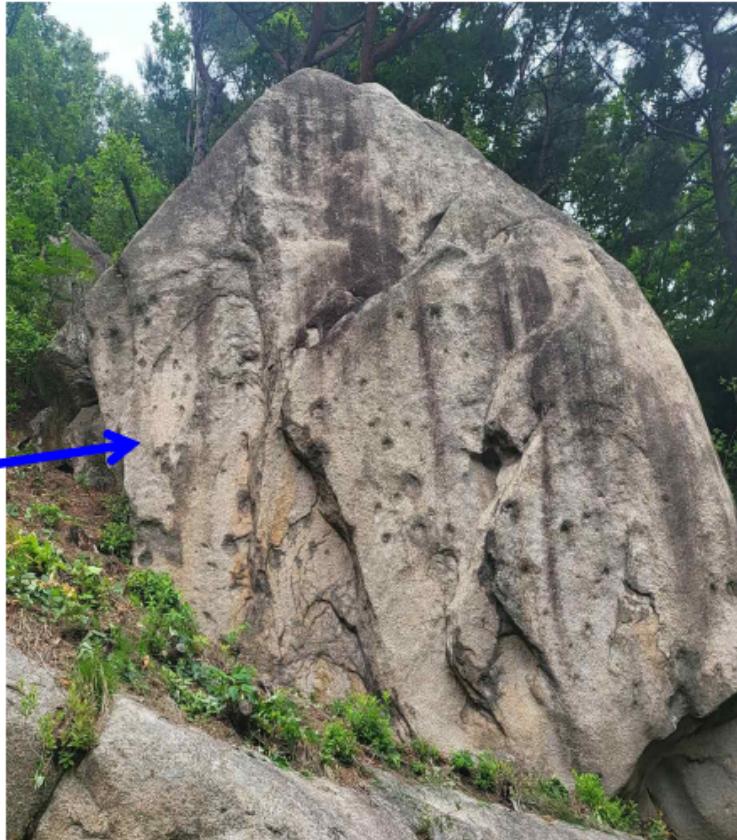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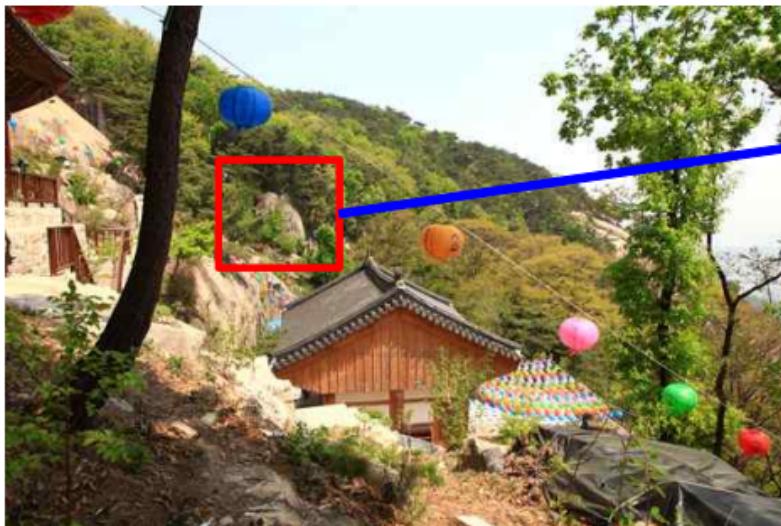
◇ 유격대 동굴 안내 간판(2021~23)



향후 추진 과제 [1/3]

■ 과제 #1 : 석천암 인근 바위 피탄 흔적

-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 활동과 연계성 검토
- ✓ 2023년 육군박물관 관련 사업으로 추진 검토 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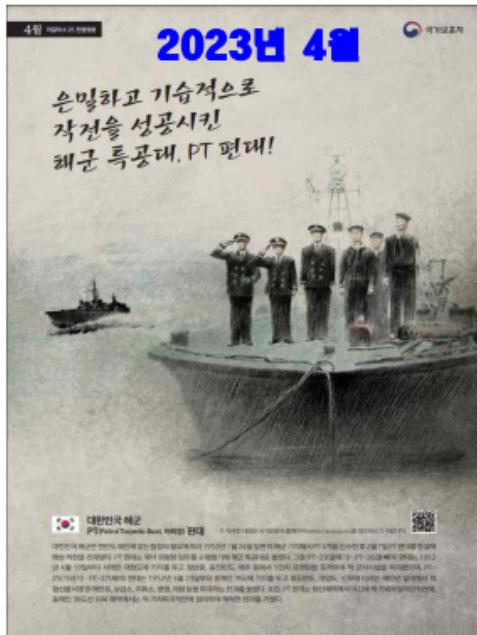
향후 추진 과제 [2/3]

■ 과제 #2 : “이달의 6·25전쟁 영웅” 선정 추진

- 인물 중심 → 단체, 부대 위주 확대 추세

✓ ‘생도 1, 2기’, ‘불암산 유격대’ 등 추천

☞ “육사의 영웅” → “국가의 영웅” 추대



향후 추진 과제 [3/3]

■ 과제 #3

: 생도 참전전투 소재 다큐멘터리 제작

- 對國민 홍보용 자료로 제작
 - ✓ 매년 호국보훈의 달 행사 등에 활용
- 학교 역사자료 존안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
 - ✓ 관련 자료 수집, 보완 : 기록 자료, 구술 자료 등
 - ☞ <생도 1, 2기 참전전투 자료집> 발간
 - ✓ 제작 비용 확보 : 예산사업 추진, 외부지원 모색 병행



- 73년 前 사관생도 신분으로 전선에 뛰어든 용감한 선배님들의 뜨거운 용기와 희생정신의 의미를 오늘에 되새기겠습니다.
- 개교 100주년을 준비하는 육군사관학교는 생도 1기, 2기 선배님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본받아 爲國獻身하는 후배 장교 양성에 전념하겠습니다.
- 개교 77주년을 맞는 육군사관학교는 생도 1기, 2기 외에도 6.25전쟁, 베트남전쟁, 대침투작전 등 수많은 임무 중 국가를 위해 산화한 졸업생들이 많이 있습니다. 학교는 이분들에 대한 자료 조사, 확보, 존안 및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

감사합니다 !

* Contact : 육사 군사사학과 나종남 교수 (010-6483-8740, najongnam@kma.ac.kr)